

광주 온 잠재적 대권주자 민주당 박영선 의원 인터뷰

“박근혜 상대는 여성인 내가 적임”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21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자신의 책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의 북콘서트를 위해서였다. 21일 밤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는 학생과 지지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의원 자신의 철학과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냈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박 의원은 경남 창영이 고향이고 MBC 기자를 거쳐 지난 17대 국회의원에 입성, 내리 3선에 성공한 스타 정치인이다. 광주일보는 22일 박 의원을 만나 생각과 정치철학 등에 대해 들었다.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대선에 출



민주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좌클릭은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스텠더드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좌파라고 말한다. 그것은 문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중요적인 것을 흡수해야 한다.

-당내에 모바일투표 논란이 있는데.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전국 선거와 200만 이상의 도시 선거에서는 전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타지역에서는 모바일과 다른 방법을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권교체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했으

20~30대 젊은층 소통 잘한

안철수 원장 정권교체 활용

민주 대권·당권 분리 필요

시대 반영 모바일투표 해야

마한다면 내세를 모토는.

▲출마에 관한 것은 아니고, 대학 때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하던 동료에게 느꼈던 나는 그다지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았다. 빛을 끊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회가 균등한 나라의 블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다.

-이번 북콘서트가 대선행보의 시작이라 해석이 있는데.

▲북콘서트는 파업 중인 MBC 후배들에게 응원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확대해석은 많지만 아직은 (나에게) 이르다는 생각이 있다. 다만, 정권교체를 강행하는 사람들이 여성주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하고 또 상대 여성후보에 여성(대결하는 게) 낫다는 일부 의견에 동의한다.

10여년 전 기자로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인터뷰할 때였다. 아마 탈당 직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이희창 후보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서 든 이유가 당 민주화를 위해 사당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런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다. 만약 박 전 위원장과 토론을 한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현 민주당의 대권·당권 분리 규정이 고쳐지지 않으면 출마가 불가하다. 이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분리 규정은 필요하다. 다만, 그 기간

1년은 너무 같다. (자기) 출마 여부를 떠나서 1년 동안 대선후보라는 당의 소중한 인적자원의 밭을 뚫어버리는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탄력성이 떨어진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여성리더십 시기상조론’이 논란을 불렀다.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무엇보다 남의 집안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다만, 여성에게는 특혜도 있고 차별도 존재한다. 이것을 자신에게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장을 인터뷰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나.

▲나름대로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목표를 향해 쓰아놓은 게 많은 사람이라 것을 느꼈다. ‘투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집착’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에게 권력의지를 갖게 된 배경에는 첫째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겠다는 집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무 강하면 대한민국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청와대에서 자란 것에 대한 향수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놓고 ‘좌클릭’ ‘우클릭’ 논란이 있다.

▲방향을 정해 놓고 한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벌개혁, 경제

면 하는 출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그 분만 20~30대와 소통하는 사람은 없다.

-과거 정동영 고문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이번 대선에서 정 고문의 거취에 대해 조언한다면.

▲손학규 고문이 당 대표가 되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라고 조언했었다. 대선후보까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선거에 나가면 안 된다. 한번 정도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쉬었다면 좋았을텐데….

-호남과 인연은.

▲글쎄, 반반박씨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남편이 광주 서석초등학교를 잠시 다녔다는 것 정도다. 어제 북콘서트를 위해 광주에 들른 남편이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다고 들었다.

-광주·전남에 대한 인상은

▲지난 2004년 4월 1일 목포에 온 것이 첫 호남 방문이었다. 목포역에 내려 유달산을 보며 “드디어 호남땅을 밟았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 고향보다 더 많이 광주·전남을 찾았다. 첫 느낌은 산업화가 덜 손해가 덜 묻은 자연환경이 이 지역에 오히려 큰 힘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산세가 여성적이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살갑다는 생각을 했고, 보면 볼수록 아름운 고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가기록원, 6·25전쟁 희귀기록물 공개



1952년 전시구호품 소고기 통조림.



1950년 서울의 쌀 일일배급 모습.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62주년을 맞아 유엔과 영국·몽골 국립문서보존소에서 수집한 6·25전쟁 관련 희귀 기록물을 24일 공개했다.

5천만동이 23일 서울서 탄생

‘20-50클럽’ 세계 7번째 국가

지난 23일 오후 6시18분 대한민국 5000만동이가 태어났다.

제일병원은 윤선영(30) 씨가 자연분만으로 대한민국 오전만동이의 주인공인 3.165kg의 딸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3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보다 앞선 6월 23일 6시 18분 5000만동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지자 의료진과 보호자들 모두가 축하했다.

유 씨는 “대한민국 인구 5000만 시대를 여는 첫 아기로 태어나 기쁘다”며 “상징적이고 특별하게 태어난 만큼 밝고 건강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기의 이름은 김태양으로 지었다.

/연합뉴스

오늘의 여수엑스포

여수의 여름 밤이 뜨겁다. 매일 밤 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엑스포 팝스타리벌에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하고 있다. 오늘 무대에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바비킴과 시원한 창법의 거미가 초대됐다. 이들 가수들의 흥겨운 히트곡을 들으며 여수에서의 색다른 행복을 만끽해 보자.

△엑스포 팝스타리벌-바비킴, 거미(엑스포 특설무대 오후 8시)

△기류아 가루아(아린이극장·오전 10시부터)

△덩덩쿵따쿵(천막극장·오전 10시 20분)

△댄싱하이어로(천막극장·낮 12시)

△해상소(꽃피는 바다)(해상무대·오후 2시)

△연희단발산대(진통마당·오후 7시)

△DJ댄스쇼(엑스포특설무대·밤 9시 30분)

△어제의 관람객 수=3만5487명(이하 24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 수=224만7514명

中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

28일 여수박람회 온다



중국의 대표적 경제통이며, 차기 총리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유력 정치인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상진)가 오는 28일 여수박람회장을 찾는다. 박람회 조직위는 24일 “왕치산 부총리가 박람회 중국 국가의 날을 맞아 28일 여수를 찾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1982년 중앙서기처 농촌정책연구실에서 공직을 시작한 왕 부총리는 인민행부 행장, 국무원 경제제도 개혁관공실 주임, 베이징시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현대공인증개사

공인증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종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주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청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7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535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원로.

■ 매매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청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빼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이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우리 공인증개사

일곡지구 중심상가 밀집지역내 위치